

# “우수 중기제품 애용으로 지역경제 튼튼하게”

## 성문당-인쇄 전문업체

### CTP·옵셋인쇄기 갖춰 다양한 인쇄 제작 강점



2000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 2004)을 인증 받아 최고의 품질을 제공 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 일반옵셋인쇄와 특수인쇄를 주요사업으로 하며 기획·디자인·출판 작업도 가능하다. 팜플렛·카드로그·전단 출판은 물론 DM(홍보물 발송)도 하고 있다.

특히 한 곳에서 기획·디자인 시설과 CTP·옵셋인쇄기 등 첨단시설을 갖춰 다양한 인쇄물 작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성화고생 중소기업 현장 채용상담회'를 개최해 지역 고등학생의 취업 지원에도 발벗고 나섰다.

이수만 대표는 “앞으로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쇄업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흐르는 강물과 같이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인쇄산업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222-2555.

1960년 문을 연 (주)성문당(대표 이수만)은 창립 후 50여년 동안 오로지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외길을 달려온 인쇄 전문 업체이다.

광주시 동구 남동 문화전당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로는 선도적으로 2005년에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 성인-유기질퇴비 설비 제작

### 탈취·악취 저감시설 개발... 오·폐수 방출 없어



함께하고 있다. 2000년에 자체 생산한 퇴비화장치를 실용신안 등록(제0182812호)했으며 2002년에도 스크러버(SCRUBBER·탈취 및 악취저감시설)를 개발해 시판해오고 있다. 2003년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패들링교반기를 이용한 축분노 처리장치를 개발했으며 2010년에는 습식스크러버 분사노출장치를 특허 등록(제10-0944504호)했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업으로도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습식스크러버 침전슬러지자동제거장치 특허(제1040225호)를 등록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으로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선정됐다. 담양에 설치된 한결유기축산 가족분 발효시설 및 탈취설비도 담양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성인이 설치한 것이다. ㈜성인이 생산한 제품은 발효효율이 높고, 외부로 방출되는 오·폐수가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의 062-973-4466~67, 홈페이지 www.sung-in.co.kr

㈜성인(대표 박익성)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쓰레기를 산업현장의 부산물인 톱밥, 왕겨, 볏짚 등을 재활용해 유기질퇴비로 만드는 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다.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벤처소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성인은 1998년부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시작해 지역 농·축산 농가와

대기업 사업장이 많지 않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특산품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를 상대로 도약하고 있다.

광주일보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와 함께 지역 우수제품 사주기 '바이(BUY) 광주·전남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술개발, 판로지원을 위해 광주 지역 대표 중소기업 5개사와 우수 제품을 소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금탑공조산업-저온·급속냉동 설비 제조

### 예냉·제보습 저장 가능 농산물 보관 능력 향상



(유)금탑공조산업(대표 설성호)은 저온·냉동창고와 급속냉동, 신·재생에너지 기계설비를 만드는 전문기업이다. 그동안 냉동·냉장·급속냉동 제조 설비를 갖추고 기계설비분야에서 완벽을 기하고 있다. 1997년 설립이후 20여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온 금탑공조산업의 제품은 예냉과 제·보습 저장이 가능해 농산물의 특성에 맞는 보관능력을 향상시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 분야는 ▲이동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조 ▲공기열·지열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급속냉동 시설구축 ▲조립식 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 제조 ▲지상복합 건축에너지이다. 특히 토탈 에너지 솔루션(Solution)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와 기술 제휴를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한 원예농가는 금탑공조산업의 공기열 히터펌프를 설치해 농가가 냉·난방비 절감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한 원예농가는 금탑공조산업의 공기열 히터펌프를 변경한 후 난방비를 60%가량 아끼고 있으며, 기존 병커 C유 보일러 사용때보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문의 062-266-0485, 홈페이지 www.금탑냉동.com

## 나무조아-말뚝퇴비 생산

### 가볍고 냄새없는 친환경 도시형 유기질 비료



혁신적인 신개념 도시형 퇴비다. 부피와 무게가 작고 가벼워 작업이 간편하고 보관이 용이하며 수목 주위의 땅 속에 박아 두기 때문에 성분 유실이 없는 것도 말뚝퇴비의 장점이다.

땅이 부드러운 곳에서는 발로 밟아도 가능한 편리한 작업성과 말뚝퇴비

나무조아(대표 정상린)는 담양에서 말뚝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가 최초로 개발한 말뚝퇴비는 땅속에 박아 두기 때문에 성분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또 땅속을 기를 지게 하며 수목의 뿌리와 줄기, 잎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 함유하고 있는 종합영양제의 기능을 한다.

순수 유기물 성분으로 구성됐으며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비료의 5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퇴비의 악취를 제거해, 사용 기간에 불편함이 없는

개당 일반 퇴비 1kg에 해당하는 경제성도 이 퇴비의 특성이다. 기본적인 말뚝퇴비의 성분은 축분 30%, 톱밥 20%, 미강 20%, 유박 5%, 농축성분 25% 등으로 구성됐다.

정상린 대표는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면 말뚝퇴비만한 비료가 없다”며 “땅은 미래의 자산인 만큼, 효과가 입증된 말뚝퇴비가 더 널리 퍼져 우리 땅을 가꾸는데 일조하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511-1316, 홈페이지www.namujoa.co.kr

## 인아-영상디스플레이 제조

### 가전제품 생산 30년 ... 미·멕시코에 판매법인



판매법인 INAREX USA, 멕시코에 IN-AMEX, 베트남에 IN-AVINA를 설립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LA와 멕시코, 베트남에 판매법인을 통해 작년에는 700억

(주)인아(대표 백희중)는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영상디스플레이 생산 및 제조 전문기업으로 주 생산제품은 FULL HD LED TV, Monitor, Monitor TV 등이다. 1987년 설립 이래 동부대우전자(주) 협력사로 30여년간 축적된 제조기반 노하우로 가전제품 설계에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제반 설비체제를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해 있는 (주)인아는 가전제품 제조기업인 인아정밀(주), 의류기기 제조기업인 (주)아렉스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판매처는 미국에 LA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INNO-BIZ인증, TS16949인증, ISO 9001인증, 대통령표창 등 수 많은 인증과 수상으로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백희중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확대해 매출 1000억원 달성과 함께 광주의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 투자, 경영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2-951-9371, 홈페이지 www.inapeople.com



##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기 캠페인 ①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일터에서는 매년 지게차 사고로 많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나와 동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 1 지게차 운행경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 2 운전자 시야를 확보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